

[종합]

“美 원정출산 불가능해 질듯”

美 대법 ‘속지주의’ 폐기 심의키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에게 미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시민권 자동부여’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해 미 의회 논의 차원을 넘어 연방 대법원이 심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 전문지 ‘CQ 위클리’ 최신호가 14일 보도했다.

CQ 위클리는 “현재 미 의회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의 일부로 자동시민

권 부여 문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 문제가 불완전 미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잡지는 “그런 대법원이 이 수정헌법 조항을 직접 다른 적이 없기 때문에 미 의회가 시민권 자동 부여 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법을 제정하면 미 대법원은 그같은

제한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 외국 여행객일 경우에도 미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 국민들의 ‘원정출산’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미 공화당 나단 딜 하원의원은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미국적 아이가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

국에 체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 미국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지난주까지 의원 8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속지주의 원칙 폐기 문제는, 이민으로 이뤄진 미국에서 국적 취득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것은 건국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으나, 최근 불법이민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사실상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세상민=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조선경제수탈자료전’에 전시될 당시 물자 지원용 보험가입 강요 포스터. (순천시청 제공)

‘여수박람회’ 지원 본격화

국무총리 위원장... ‘유치지원’ 구성키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15일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박람회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012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유치지원위원회는 여수엑스포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등 정부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전남지사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유치지원위원회는 박람회 유치와 관련된 주요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심의·조정하고, 추후 출범할 예정인 ‘2012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파견 등 행정·재정적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또 유치지원위원회에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유치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관계 부처간 실무협의 등 박람회 유치 실무를 맡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적제 심사와 총리 재가를 마친 뒤 빠르면 이달 중으로 규정안을 확정하고 유치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감사원, 광주시 감사 ‘이례적 해명’

감사원이 광주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광주시 영상문화시설 237억원 사정(死藏) 등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공식 해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15일 이밖에 발표한 감사 내용은 지난 해 6~8월 당시의 감사 결과를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추가 확인없이 그대로 발표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해명서를 광주시에 보내왔다.

광주시는 “감사원이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영상문화시설 설치와 학생

회관 이전 등의 추진과정에서 237억원이 사정됐다는 감사결과와는 지난해 6~8월 당시 조사 내용이라는 점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이는 영상문화시설 사업이 8월 이후 부지 변경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나 감사원이 이를 간과한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해명을 해줌에 따라 감사원장 고소 방침을 철회할 예정이다. /최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총유권자 253만명

첫 투표권 19세 4만4천여명

광주·전남 총 유권자 수가 지난해 말 현재 253만6천명으로 지난 2004년 총선때에 비해 5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19세 유권자는 4만4천여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광주지역 유권자는 101만5천267명, 전남지역은 152만271명으로 양 지역을 합치면 모두 253만6천977명에 이른다.

이같은 유권자 수는 지난 2004년 4·15 총선때 248만4천454명

에 비해 5만1천643명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19세 유권자는 광주가 1만9천178명, 전남이 2만5천13명으로 모두 4만4천191명이었다. 광주·전남 전체 유권자의 2%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명부는 오는 5월24일 최종 확정된다.

한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19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6일 오후 1시30분 광주대 호심관에서 ‘건강한 대학생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日帝下 경제 수탈

순천시 사료 전시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저지른 경제수탈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료 전시회가 순천에서 열린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사)남도문화재단이 주관해 오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일제강점기 조선경제수탈상을 알 수 있는 30여 점이 전시된다.

사료 가운데는 당시 전쟁물자 지원용으로 강제됐던 탱크와 비행기, 일장기 등이 그려진 전시보국채권을 포함해 우체국에 금통장, 보험증서 등이 포함돼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빛의만평 - 김중두

집을 털 때도 되었건만...

靑 조기속 홍보수석 사퇴 후임에 이백만 차장 유력

조기속 청와대 홍보수석(사진)이 15일 대학교수로 복귀하기 위해 홍보수석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지난해 12월말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복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의 후임에는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청와대는 이르면 16일 인사추천회의에서 이 차장을 홍보수석에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원기자 sykim@kwangju.co.kr

배기선 의원 징역5년 선고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5일 대구하게U대회 지원비 연장 대가로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6·경계 부천 원미동) 의원에게 징역 5년 6개월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받은 1억3천만 원 가운데 정예인단체 후원금 명목의 5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U대회지원비 연장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되지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임시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추고 징구속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단말기 보조금’ 진통끝 국회 통과

이동전화 가입자중에서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을 넘은 가입자에 대해 2년에 한번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 보조금’ 법안이 국회 통과와 최대 고비를 넘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는 15일 단말기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한 찬반 토론 끝에 표결을 통해 참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으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중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27일 발효될 예정이다. /김석원기자 sykim@kwangju.co.kr

“여수박람회 유치 적극 지원해 달라”

박준영지사, 오늘 재외공관장 회의로 요청

오거돈 장관은 불참할듯

박준영 전남지사가 세계 각국에 파견된 한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나선다.

전남도는 박지사가 16일 오후 4시 외교교통상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06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해 지구촌 곳곳에서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들에게 여수엑스포의 준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유치를 적극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관장회의에는 대사 95명을 비롯해 영사 등 한국 외교관 10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세계박람회사 무국(BIE) 98개 회원국 가운데 62개국에 근무하는 공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망을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사가 외교관들을 직접 만나 여수엑스포에 대한 지원사격을 요청한 것은 그동안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부처의 소극적인 유치노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여수엑스포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면서부터 BIE 실사가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졌는데도 유치지원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안만 마련됐을뿐 아직까지 중앙유치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부처 장관이면서도 엑스포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오거돈 해수부장관은 당초 이날 공관장회의에 참석해 박람회 유치 준비상황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차관을 대신 보내기로 해 빈손을 사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 경찰청장에 홍영기씨

치안감 21명 승진·전보 인사

경찰청은 15일 전남 경찰청장에 홍영기(50·사진)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을 전보하고, 경무기획국장에 정봉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을 승진발령하는 등 10명의 치안감 승진인사와 11명의 치안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20명)

이날 치안감 승진자 10명의 지역 분포는 경기 2명, 광주·전남 3명, 대구·경북 3명, 부산·경남 1명, 충남 1명 등이며 10일 발표된 치안감감급 서울청

장과 경기청장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방청장이 모두 교체됐다.

신임 홍 전청장은 신인출생으로 복고포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년 치안감으로 승진, 경무기획국장을 맡는 등 경찰내 최고 기획봉으로 꼽힌다. 경찰청은 후속 경무부·총경급 인사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판매량 최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 직통 (062)227-9600 ◆ FAX: 227-9500

구분: 기획·문집·모집·초판·영양·모양
사실금·매일·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 광주은행: 091-1071-228160 ◆ 농협: 617-01-108334
※ 예금주: (주)광주일보

공무원 대출 (직장인)

● 공무원
● 교직원(공립, 사립)
● 군무원

● 직장인

● 금리: 6%
● 500만~7000만원
● 1년~최저까지

● 임대보증금 및 단기연체자 가능
● 무보증 무담보

● 직장인: 500만~3000만원
● 원천징수 가능자, 금리 6% 무보증, 무담보

☎ 080-500-6620 (무료전화)
☎ 011-9535-8236 (상담실장)

공무원 특별대출

● 금리: 6%~15% (천만원 월이자 5만원부터~)

● 금액: 2백만~3천만원정도 (은행·금융권)

● 대상: 공무원·교직원(공립·사립) 직장인

● 금융기관 과다대출·연체자도 가능

● 무보증·무담보 (신용대출)

☎ 080-411-0000 (무료전화)
☎ 011-821-6414 (상담실장)
※ 광주·전남·북 전지역 출장가능

산행

▲ 광주등산클럽 전북 완주 봉래봉-봉명산 2월18일(토) 08시 광주주요(해미리)출발
T.011-604-9921

▲ 광주등산클럽 전북 완주 봉래봉-신바봉-서부봉 2월18일(토) 08시 광주주요(해미리)출발
T.011-604-9921

▲ 영주산악회 합천-가야산 두리봉 2월18일(토) 08시 영주주요(해미리)출발
T.011-608-2208

▲ 광주도요산악회 남원-이피산 2월18일(토) 08시 광주주요(해미리)출발
http://cate.com.net/gwangjuinfo

▲ 광주도요산악회 전남 신원-동석봉 2월19일(일) 08시 광주주요(해미리)출발
T.011-608-4267

▲ 광주도요산악회 전남 의방-자골산 2월19일(일) 08시 대인광장(해미리)출발
T.011-616-6300

▲ 거북이대마산악회 광주 마곡사, 철쭉산 2월19일(일) 08시 현 대인광장(해미리)출발
T.010-3051-3252
016-680-7980

▲ 김빛산악회 백두대간 지가재-근재 2월19일(일) 06시 영주주요(해미리)출발
T.011-601-6944

▲ 광주등산협회 남원-금전산 2월19일(일) 08시 광주주요(해미리)출발
T.222-3253
010-7619-0559

▲ 요산회 지리산(노고단, 반야봉, 불부봉) 2월19일(일) 08시 광주주요(해미리)출발
T.010-7171-2682
011-602-5224

▲ 다음카페:(사)요산요산산악회 회장 선자봉-정동전관봉 2월19일(일) 07시 남원주하강고(영주주요)출발
T.011-620-2002

▲ 호남산악회 지리산 반곡대 2월19일(일) 08시 광주주요(해미리)출발
T.011-602-6677

▲ 새무등산악회 전남 의방-자골산 2월19일(일) 08시 대인광장(해미리)출발
T.010-3051-3252
016-680-7980

▲ 새무등산악회 전북 완주 봉래봉-봉명산 2월19일(일) 08시 광주주요(해미리)출발
T.011-602-4972

▲ 나사모산악회 백두대간(죽령-고리) 2월19일(일) 03시 광주주요(해미리)출발
T.062-525-7223

▲ 울타리산악회 논산 황령산 2월19일(일) 08시 국대호텔출발
T.011-603-1029

▲ 광주원산악회 전남 화순 용성산 572m 1199차 산행(의성산) 2월19일(일) 08시 영주주요(해미리)출발
T.011-620-1977
011-9452-9338

▲ 명문산악회 경남 거창 보배산 2월20일(월) 07시 송정공원, 08시 5분 광주주요(해미리)출발
T.011-644-6605
017-589-7800

▲ 월명산악회 계룡산 2월21일(화) 08시 영주주요(해미리)출발
T.011-637-5108

▲ 팔상산악회 무주 대유산 일출봉 2월21일(화) 07시30분 풍암중, 08시 팔상산악회 08시10분 강관리협회, 08시20분 예술회관주요출발
T.011-605-3474

▲ 이대르산악회 해남 별매산-흡석산 2월22일(수) 07시45분 봉암지구(해미리)출발
T.017-225-4202
011-605-6361

▲ 삼각산악회 전도 남양산 2월26일(일) 08시 두암동 88대니스장출발
T.011-644-2730

▲ 울타리산악회 지리산 2월26일(일) 08시 국대호텔출발
T.011-603-1029

▲ 광주대일산악회 거창 수도산-양각산-황대대사 2월26일(일) 08시 구도정회관출발
T.016-639-3000

▲ 숲산악회 팔매이치에 코타카타발주산(101m)등산후 사파신 및 배안국립공원분교 3월11일(토)~15일(수)14박5일 2월28일 접수마감
T.011-9624-9009

▲ 광주백운산악회 금강산 민둥산(남한강) 2박3일 운현빌리지, 구룡포, 은천역 곡예단과 3월17일(금)~3월19일(일) 3월17일 06시 분야회관출발
T.010-3949-0453

▲ 광주도요산악회 중국 황산 6월3일(토)~6월6일(화)13박4일
★ 예약문의: 3월15일(수)까지 상세내용: http://cafe.daum.net/gwangjutoyo

분할합병 및 주권대출공고

주식회사 시대정보통신건설(“갑”), 대우건설 주식회사(“을”)는 서기2006년 2월 15일 주주총회 결의로 “을”은 “갑”을 분할합병하여 그 권리와무를 승계하고 “을”은 “갑”의 독자 중 정보통신공사업(면허번호:170131)을 분할하여 “을” 회사에 병합이 필요하나,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15일

“갑” 주식회사 시대정보통신건설
광주 서구 풍천동 711-19 대표이사 윤인순

“을” 대우건설 주식회사
광주 서구 풍천동 711-19 대표이사 김봉자

어음거래 담보

어음 1,000만원 이하 환영 [月2~5.5%] (등록업체)

010-3009-6633